

## 현장 중심 활동 5대 과제 ‘힘’



문선화 동구의장

생활 안전·복지 강화·경제 회복  
관광 활성화·기후 위기 극복 등

광주 동구의회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현장 중심 의정’을 선언하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문선화 동구의장은 11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민주주의 핵심 현장인 만큼 밸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동구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새해 첫 과제로는 ‘생활 속 안전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이를 위해 동구의회는 재개발 현장과 노후 골목길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선 사람 중심과 연결에 방점을 찍었다. 문 의장은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며 “누구도 제도의 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꿈꼼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또 지역경제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동구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동구만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에도 나선다. 문 의장은 “축제와 문화 정책이 단기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동구의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통감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문선화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참여를 제도화해 국민 주권 구현을 이끌어야 한다”며 “평화·통일·민주주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 사회적 갈등 조정과 평화적 공존을 실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도 주민 곁에 먼저 다가가고 손과 밸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신뢰받는 동구의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영 기자

## 주민이 주인 ‘열린 의정’ 구현



전승일 서구의장

참여 확대·소통 강화·투명 공개  
포용적 제도 마련 등 중점 과제

광주 서구의회는 2026년 주민이 주인 되는 ‘열린 의정’을 핵심 기조로 삼고 참여·소통·투명성을 강화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전승일 서구의장은 11일 “주민이 묻고 주민이 확인하는 의정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의장은 올해 중점 과제로 ▲ 주민 참여 확대와 정책·예산 결정 과정 개방 ▲ 청년·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아우르는 포용적 제도 마련 ▲ 의원 활동·의회 운영 전반 소통 확대 ▲ 의정 활동 투명한 공개·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주민 참여 확대와 정책·예산 결정 과정 개방 확보를 위해 서구의회는 주권자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며 참여 구조 강화에 나선다. 또 지역 내 모든 구성원이 존중 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포용적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원 개개인의 활동과 의회 운영 전반을 주민 앞에 공개하며 소통에 끊임없이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적 투명성과 책임성의 실질적 확보에도 힘쓴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범위를 기준보다 대폭 확대함에 따라 서구의회는 정보 공개 기준과 시스템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승일 의장은 “지난해 도입한 회기 생방송과 주민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 듣기 위해 신설한 의정소통팀 등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 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진심이었다”며 “2026년에도 주민과 함께 서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 일 잘하는 ‘유능 의회’ 쇄선



남호현 남구의장

견제·균형 본연 역할 충실  
현안 위한 상생 협력 계속

광주 남구의회는 ‘9대’ 마무리를 앞두고 구민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남호현 남구의장은 11일 “올해도 구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며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우선 정책 심의·의결, 예산 심사, 구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행정의 투명성과 적합성을 점검하고 견제와 균형 역할에 충실히 계획이다.

또 의정 활동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의원 연구 단체 활동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지원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필요한 조례와 제도를 정비하는 역량을 높이는 데도 힘쓴다.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에 맞춰 견제 재정 운영과 구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사업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기반 확충, 교육·문화·복지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구정 현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협치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협력도 이어나간다.

남호현 의장은 “구민의 행정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일 잘하는 의회’,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유능한 의회’가 될 것”이라며 “구민들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남구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남은 임기도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주어진 역할과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 구민 곁 지키는 ‘책임 의정’



최무송 북구의장

민생·안전·미래 중심 활동 강화  
지방자치 실현·구민 신뢰 강조

광주 북구의회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민생 안정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의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무송 북구의장은 11일 “구민의 성숙한 참여와 현장에서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에 북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올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주민 소통 바탕 ‘현안 해결’ 총력



김명수 광산구의장

일자리·돌봄 등 민생 안정 총력  
군공항·금타 이전 정책 뒷받침

광주 광산구의회는 병오년 한 해 초심을 지키고, 구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며, 광산의 ‘특별한 내일’을 준비하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쏟는다.

김명수 광산구의장은 11일 “의원 18명 모두와 함께 4년 전 구민과 손잡고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현장에서 현안을 살피고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정을 펼쳐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우선 민생 속 보통의 하루를 쟁기기 위해 주거, 일자리, 골목상권, 돌봄 등 사회의 기초가 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삶 곳곳에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장 낮은 곳부터 세심히 들여다보고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대폭 넓혀 구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산의 특별한 내일을 위한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등 오랜 난제들이 지역 발전의 확실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사업 추진 단계마다 구민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독려해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감 있는 상생의 길을 열어갈 구상이다.

김명수 의장은 “이러한 현안들은 광산구를 넘어 광주 전체의 지도를 바꿀 전환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의 길을 열어 지역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추운 겨울 끝에 반드시 봄이 온다는 믿음으로, 구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구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따뜻한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옥근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 전 지역 6만 배송 (기타 낙후 지역 배송비 추가 요금 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 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